



쌍용자동차

보도자료

2012년 7월 26일(목)

쌍용차, 상반기 매출 1조 3,559억 달성

- 내수 21,841대, 수출 34,812대 등 총 56,653대 판매, 전년 동기 대비 1.4% 증가
- 내수 성장세가 상반기 실적 상승주도, 내수판매 전년동기 대비 7.9% 증가
- 하반기 시장 대응 위해 새롭게 선보인 상품성 개선 모델 마케팅, 판촉활동 강화

쌍용자동차(대표이사 이유일: www.smotor.com)가 지난 상반기 ▲ 내수 21,841대, 수출 34,812대를 포함 총 56,653대(CKD 포함)를 판매해 ▲매출 1조 3,559억 ▲영업손실 537억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.

이러한 실적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7.9% 증가한 내수 성장세에 힘입어 상반기 판매가 전년대비 1.4% 증가한 것이며 영업손실 규모도 537억 원으로 약간 감소된 실적이다.

특히 내수판매는 지난 1월 국내 최초 LUV(Leisure Utility Vehicle)인 「코란도스포츠」를 시작으로 4월 국내 SUV 최고연비(20.1kmℓ)인 「코란도 C」 CHIC 모델 등 꾸준한 제품개선모델 출시로 최근 3개월 연속 4,000대 이상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판매증가를 주도했다.

다만,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.3%정도 감소한 실적을 나타냈다.

차종별로는 「코란도스포츠」와 「코란도 C」가 각각 18,520대, 21,514대 등 총 40,034대가 판매되며 전체 판매의 70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개선모델이 판매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손익실적은 판매증가 및 환율에 따른 손익개선 영향으로 1분기 △326억, 2분기 △211억을 기록하는 등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동기 대비 약간 감소한 537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.

다만, 전년대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분기에 희생채무면제 이익(460억)이 계상된 것을 감안할 시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.

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는 “전 세계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판매감소 우려 등 하반기 경영여건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이를 극복하기 위해 「렉스턴 W」, 「로디우스 유로」 등 새롭게 선보인 신차를 중심으로 한층 판촉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 <끝>

■ 2012년 상반기 판매 현황

(단위 : 대)

| 구 분 | 2012년 | | 2011년 | | 전년 동기 증감율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| 2분기 | 상반기 | 2분기 | 상반기 | 2분기 | 상반기 |
| 판매대수 | 30,212 | 56,653 | 31,132 | 55,873 | -3.0% | 1.4% |
| 내 수 | 12,141 | 21,841 | 10,272 | 20,246 | 18.2% | 7.9% |
| 수 출 | 18,071 | 34,812 | 20,860 | 35,627 | -13.4% | -2.3% |
| (CKD) | - | (48) | (360) | (660) | -100.0% | -92.7% |

■ 2012년 상반기 손익 현황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2012년 | | 2011년 | | 전년 동기 증감율 |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| 2분기 | 상반기 | 2분기 | 상반기 | 2분기 | 상반기 |
| 매 출 액 | 7,119 | 13,559 | 7,287 | 13,492 | -2.3% | 0.5% |
| 영업손실 | -211 | -537 | -334 | -753 | - | - |
|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 | -210 | -525 | -349 | -323 | - | - |
| 당기순손실 | -210 | -525 | -349 | -323 | - | - |